

公害시대의 건강과 죽염의 活用法

金 倫 世

韓國竹鹽工業協同組合 理事長

I. 서 론

1. 죽염이란 무엇인가

죽염은 우리 민족이 오래 전부터 각종 염증 및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 온 '민속약(鄉藥)'이다.

죽염의 기원은 우리 나라의 오랜 민간요법의 전통에서 비롯된다. 본래 한국에는 소금을 볶아서 쓰거나, 대(竹)통 속에 넣고 한두 번 구워서 체했을 때나 소화가 잘 안될 때, 상처가 났을 때 지혈제나 소독제, 이를 닦는 재료 등으로 써 왔다. 이 민간요법은 지금도 한국의 경상남도 일부 지방에 남아 있는데, 이를 '구염(灸鹽)' 또는 '약소금'이라 불렀다.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오던 약소금 제조법에서 단서를 얻어 이를 깊이 연구·발전시켜 지금과 같은 '죽염'을 개발한 사람은 옛 중국의 화자·편작을 능가하는 명의(名醫)로 알려진 인산(仁山) 김일훈(金一勳:1909~1992) 선생이다. '죽염'이란 명칭은 어떤 옛 의학책이나 문헌에도 없는 것으로, 선생이 1981년에 펴낸 책 <宇宙와 新藥>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엄격히 말해 오늘날의 죽염은 김일훈 선생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은 이전까지 민간비방으로 전해 내려오던 가공염(加工鹽)의 제조방법을 개선, 오늘날의 죽염이라는 신물질로 재창조한 것이다.

따라서 죽염의 탄생은 소금의 약성과 그 응용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인산 선생의 탁월한 약리학(藥理學)에 대한 혜안(慧眼)에서부터 출발한다.

죽염은 이름 그대로 대(竹)와 소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이다. 조수(潮水)와 땅 밑에 있는 광석물의 영향을 받아 특유의 암약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서해안의 천일염과, 이 천일염 속의 핵비소(核砒素)와 대나무 속에 들어 있는 맑은 물 속의 핵비소를 추출·합성하여 만든 것이 죽염이다.

대(竹)는 땅 속의 유황정(硫黃精)을 흡수하여 자라므로 종기나 창증(瘡症)의 치료제인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며, 보음(補陰)·보양(補陽) 효능도 지니고 있다.

또한 소금의 간수(簡水) 속에는 만 가지 광석물 성분을 지닌 결정체가 있는데 이를 보금석(保金石)이라 한다. 보금석 가운데 비상(砒霜)을 이룰 수 있는 성분을 핵비소라고 한다. 이 핵비소는 지나치게 섭취하면 살인물(殺人物)이 되지만 적당하게 섭취하면 활인물(活人物)로서 만병의 신약이 된다.

우리 나라 서해안 천일염에서 만든 소금만이 유일하게 이 핵비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서해안 천일염을 섭씨 1천도가 넘는 고열로 처리하면 만 가지 광석물 가운데 인체에 가장 이롭게 쓸 수 있는 핵비소를 얻을 수 있다. 이 핵비소의 힘으로 죽염은 갖가지 질병에 폭넓게 쓰이는 신약(神藥)이 되는 것이다.

2. 천연 소금을 아홉 번 굽는 이유

죽염은 대나무통 속에 천일염을 넣고 아홉 번을 구워서 만든다.

먼저 3년이 넘게 자란 왕대(王竹)를 마디마다 잘라 그 대통 안에 서해안에서 난 천일염을 단단하게 가득 다져 넣는다. 그리고 깊은 산에서 파온 붉은 황토를 물로 걸쭉하게 이겨 대통 입구를 막는다. 다음에는 소금을 다져 넣은 대통을 쇠로 만든 가마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서 굽는다. 한 번 구우면 대(竹)는 타서 재가 되고 소금은 녹으면서 굳어 하얀 막대기처럼 되는데, 이 소금덩어리를 가루로 빻아

〈죽염 제조 과정〉

- ① 서해안에서 만든 천일염을 남부지방에서 3년 넘게 자란 대를 잘라 만든 대통 속에 넣고 그 입구를 황토로 막는다.
- ② 소금을 담은 대통을 쇠로 만든 가마에 넣는다.
- ③ 쇠가마에 소나무장작으로 불을 지펴 소금대통을 굽는다.
- ④ 대통은 불에 타서 재가 되고 소금은 녹으면서 굳어 하얀 기둥처럼 된다. 이 과정을 여덟번을 반복한다.
- ⑤ 마지막 아홉 번째 구울 때에는 죽염 제조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용기에 소금 대통을 소나무 송진을 주 연료로 이용하여 1,4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면 소금이 녹아 용암처럼 흘러내린다. 이것이 식어 굳으면 돌덩어리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먹기에 편하도록 작은 알갱이나 가루로 만든다. 이 공정에서 재를 비롯한 각종 불순물을 걸러낸다.

다시 새 대통 속에 넣는다. 그리고 황토 흙으로 대통 입구를 막고 쇠가마에 소나무 장작불로 굽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덟 번을 거듭하여 굽는데 한 번씩 구울 때마다 소금 빛깔이 흰빛에서 회색으로 짙어 간다.

마지막 아홉 번째 구울 때는 송진으로만 불을 때고 특별히 고안한 기구를 써서 불의 온도를 1천 4백도 이상으로 올리면 소금이 녹아서 용암처럼 흘러내린다. 이것이 식어 굳으면 시커먼 돌덩어리나 흰 얼음 덩어리처럼 된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굽지 않거나 아홉 번을 구워내지 않은 것은 죽염이라고 할 수 없다.

소금을 쉰 열로 아홉 번 굽는 이유는 공간 중에 있는 백금(白金) 성분을 함성하기 위한 것이다. 공기 중에는 불을 따라 들어가는 백금 성분이 있는데 아홉 번을 굽는 동안 많은 양의 금속 성분이 소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3. 鹽性 보충으로 공해독에서 오는 난치성 질병 치료

죽염이 암을 비롯 갖가지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인체에 부족한 염성을 보충해 주기 때문이다.

요즘은 '소금을 먹으면 해롭다'는 이론이 올바른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이나 약이 아닌 것이 없으며 또 약속에 독

(毒)을 함유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소금 속에도 독과 약이 함께 있지만 독보다는 약으로의 기능이 훨씬 높아서 인간이 지혜의 눈을 뜨기 시작한 이후로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정착되어 왔다. 우리 선조들이 만든 전통 음식인 간장·된장·고추장·김치 등은 소금 속의 독을 중화하거나 없앤 훌륭한 건강식품의 좋은 보기이다.

죽염은 이처럼 소금 속의 독을 없애고 유익한 약성분을 함성하여 만든 대표적인 식품이며 의약품이라 할 수 있다.

소금의 가장 뛰어난 약성은 세상 모든 것을 썩지 않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만물은 염성(鹽性)의 힘으로 화생(化生)한다. 봄철 초목의 새싹이 돋고 잎과 꽃들이 피어날 때 지구상의 염성은 대량 소모되므로 지상 생물은 염성 부족으로 인해 쉬 피곤함을 느끼며 질병에 쉽게 걸린다.

이처럼 사람도 봄에 소모된 염성을 원기 부족 등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질병에 대한 내성(耐性)이 약해져 쉽게 질병에 걸리게 된다. 염성 부족으로 공해독(公害毒)의 피해를 견디어 내지 못하므로 암 등의 갖가지 난치병이 생기는 것이다. 모든 생물이 썩지 않는 것은 '염성의 힘' 때문인데 몸 안 수분에 염성이 부족하면 수분이 염(炎)으로 변하여 갖가지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오래 가면 이것이 갖가지 암으로 변하는 것이다. 피에 염성이 부족하면 혈관염(血管炎)이 오며 혈관염이 심화되면 혈관암이

된다.

죽염은 이 같이 염성이 부족하여 생기는 갖가지 질병을 예방·치료하여 준다. 부족한 염성을 보충하여 세포조직의 변질과 부패를 막고 핵비소의 독으로 갖가지 암독을 소멸하며 유허정이 생신력(生新力)을 강화하여 새 세포를 나오게 함으로써 난치 중의 난치병인 암까지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다.

4. 죽염을 이용하는 방법

죽염은 인체의 거의 모든 질병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보음(補陰)·보양(補陽) 효과 및 갖가지 공해독을 풀어주는 힘이 뛰어나므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 쓸 수 있다.

몸에 별다른 질병이 없는 사람은 한 달에 250g 정도를 먹는데 몸의 상태를 살펴가며, 스스로 양을 조절한다. 먹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몸이 붓는 수도 있으나 작은 콩알만큼씩의 양을 하루 조금씩 계속해서 자주 복용하면 부작용 없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 역시 처음부터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먹으면서 몸의 적응상태를 관찰해 가며 먹는 횟수와 양을 늘린다.

식도암·뇌암·위암 등의 암 환자는 하루 50g 이상씩,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먹어서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서 회복이 거의 어려운 말기 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죽염이 몹시 짜니까 물에 타서 먹거나 물과 함께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죽염의 효과가 떨어지고 토할 수도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죽염을 침으로 녹여 먹기 힘든 사람은 생강과 감초를 6:4 비율로 넣고 차를 끓여서 그 찻물과 함께 먹는다. 생강·감초차는 죽염 먹을 때 뿐만 아니라 늘 마시면 몸 안에 쌓인 공해독을 풀어 주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죽염은 어떤 약이나 음식과도 잘 조화될 뿐 아니라 약이나 음식 본래의 효과를 도와주므로 한약재·약죽·약차·우유 등과 함께 먹어도 좋다. 활명수·

위청수와 같은 음료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죽염은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일체 없으며, 술 마시기 전에 먹으면 쉽게 취하지 않고 취기를 빨리 깨어나게 하는 뜻밖의 효과도 있다. 그러나 죽염을 믿고 술을 많이 마시는 건 도리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별첨 자료]

〈美 하버드 의대에서 안전성 인정〉

1995년 9월, 미국 하버드 의대 대이너파버(Dana-Farber) 암연구센터는 한국 인산죽염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인산죽염은 다른 일반 소금과 달리 일시에 다량 복용하더라도 위와 장에 전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밝혀졌다.

- 인산죽염은 순수 소금(NaCl)이 아니라 필수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한 미네랄소금이다.
- 한국의 인산죽염에서 권장한대로 인산죽염을 매일 30g씩 섭취해도 USRDA(미국 일일필수 섭취량기준)에서 규정한 요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죽염을 매일 30g씩 섭취해도 일일 권장 필수 미네랄 섭취량을 벗어나지 않는다.
- 죽염은 일반 소금과 달리 대량 복용을 해도 위와 장의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는 포용력 높은 물질이다.
- 인산죽염은 타 화학물질에 비해, 항암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 :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Dana-Farber 암연구센터 암약물학부

책임연구자 : 베버리 에이 타이셔 박사

보고서 작성자 : 마리안나 스파다(과학국장 겸 사장) 박사

보고서 작성일 : 1995. 9

의뢰자 : 한국 인산죽염

〈중 북경대학 실험연구〉 결과

1992년 3월부터 1993년 6월까지 중국 북경대학은 북경중의학원, 연안의학원, 북경해방군 262병원, 주해시중의원 등에서 仁山 金一勳 선생이 연구 제조한 인산 죽염으로 위장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 韓國 인산죽염을 이용하여 87예의 위병(胃病)을 치료하였다. 임상학 효과로부터 보면 치료조의 총유효율은 91.95%이고, 대조조는 60%이며 위내시경(胃鏡)과 장내시경(腸鏡)의 병리치료효과로부터 보면 치료조의 총유효율은 83.9%이고 대조조는 46.6%이다. 이는 인산죽염이 위장질환 치료에 현저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준다.
- 실험연구는 대체형태, 조직학, 자유기(自由基) 및 전립선요소 등 몇 가지 방면으로 부터 인산죽염이 미란성위염(糜爛性 胃炎)을 치료, 예방하는 작용을 관찰하였다. 결과를 보면 위염조와 예방조를 비교하니 대체형태와 조직학은 모두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 이는 인산죽염이 큰 쥐의 미란성위염에 일정한 예방과 현저한 치료작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 천백년래 韓國人은 죽염을 이용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였는데 특히 소화계통 질병을 치료하였다. 韓國 仁山 金一勳 선생(1909~1992)은 70년간의 연구성적을 모아 인산죽염을 만들어 내었는데 위장도질환, 안질환, 열병, 전간 등에

모두 일정한 예방치료작용이 있다.

- 인산죽염은 한국해안의 질 좋은 천일염을 대통속에 넣고 1,500°C의 고온에서 아홉 번을 거쳐 수분을 빼내어 만든 일종의 알칼리성 약물이다. 인산죽염은 위장도의 산성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염증개변과 궤양면을 치료, 회복시키는 작용을 지니고 있다. 임상관찰과 치료결과를 놓고 볼 때 인산죽염의 치료효과는 확실하고 현저하며 부작용이 적다. 극소수의 환자가 가벼운 구토증 혹은 부종이 있는 외에 그 어떠한 부작용도 없다. 본 실험연구가 표명한데 의하면 인산죽염은 큰쥐의 미란성 위염에 대단히 좋은 치료 및 예방작용이 있다. 그리고 이런 작용은 주요하게 본 약물이 세포에 대한 보호작용이 있고, 自由基 함량을 낮추는 데 관계된다. 인산죽염은 위장 질환에도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기타 염증 및 궤양성 병리 변화에도 쓰일 수 있음을 증명해준다. 그러므로 임상에서 진일보 보급응용할 가치가 있다.

연구기관 : 中國 北京大學

연구주체 : 中國中醫研究院 王琦 교수팀

보고서 작성 : 中華國際醫學交流基金會

보고서 작성일 : 1994. 11

의뢰자 : 한국 인산죽염

* 注) '한국 인산죽염에 의한 위병 치료의 임상 및 기초실험 연구', 1994, 중화국제의학교류기금회 刊.